

공동이용을 위한 국내소장 외국학술잡지자원의 평가 :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the Foreign Journal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n Libraries

전명숙(Myung-Sook Chun)**

목 차

- | | |
|---------------------|----------------|
| 1. 서 론 | 3.3 구독형태별 잡지수 |
| 2. 연구방법 | 3.4 지역별 소장 |
| 3. 문헌정보학 외국학술잡지의 현황 | 3.5 잡지가격과 전자잡지 |
| 3.1 규모와 성격 | 4. 결론과 제안 |
| 3.2 연도와 도서관별 소장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구독하고있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외국학술잡지 458종을 선정하여 소장처, 연대, 권호수와 지역별 소장상태를 연구하였다. 외국학술잡지는 결호가 많고 중복소장이 되어있으며 지역별로 여러 곳에 불균등하게 소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인쇄잡지나 전자외국학술잡지를 능률적으로 구입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oreign journal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ubscribed in Korean libraries. The journals were selected from the union catalogs and were analyzed by using the Excel program. The results shows that 1)issues of a particular journal are irregularly scattered in many libraries sometimes lacking many issues 2)some journals are duplicated in many libraries 3)there are great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journal subscriptions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differences.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ults could be well used for the cooperative library services in the future.

* 본 연구는 1998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논문접수일 : 1998년 12월 5일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서관은 항상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왔다. 특히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학술자원은 그 특성상 도서관간에 종합목록을 통한 상호대차를 해왔으나, 전자자원과 전자목록의 발달은 이러한 도서관서비스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도서관의 자원규모는 줄어들면서도 도서관들간에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자원의 수집과 이용에서 상호협력하게 되므로서 도서관간에 상호의존도는 더욱 높이고 도서관 외부의 벤더에게까지도 자원공급을 의지하게 된다.

오늘날의 실질적인 도서관협력은 자관의 소장 자료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자관의 소장자료와 타 도서관 소장자료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용 가능한 전자잡지도 비교한 후에야 이를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수집된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선진국에서는 그 동안 축적해온 수많은 자원 가운데 원하는 정보만을 제대로 검색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디지털도서관을 발전시켜 왔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디지털도서관이 등장하여 국내의 이용자들이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색인과 초록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해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낸 자료들의 원문을 국내에서 즉시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외국학술잡지가 여러 정보센터나 도서관에 중복 소장되어 있으나 결호들이 많아서

국내에 축적되어 있는 자료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에 있는 자료라 해도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그런 자료들의 소장여부 및 소장처를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수록한 공동목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도서관들이 종합평가와 시기를 같이 하여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정기간행물 종수를 늘리고자 인쇄자료는 물론 여러 종류의 전자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잡지의 경우 특별한 사서들의 노력이 없이는 도서관에 보존되지 않으므로, 전자잡지를 활용하는 것이 미래 도서관의 수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다양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여전히 자원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 뿐 아니라 외국학술잡지를 구입하고 보존하기 위한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에 힘써야만 하는 것이다. 외국학술잡지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이용하기 위한 협력방법으로는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를 맞으면서 도서관마다 외국학술잡지의 종수를 갑자기 줄이게 되었으므로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을 형성해 국내에서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평가한 결과에 의해 인쇄잡지를 계속 수집하면서 전자자료도 수집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관련 외국학술자원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므로써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들이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자원연구에 기초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인쇄잡지를 수집하거나 구독을 중지하면서 도서관에는 보관되지 않는 전자자료를 계속 증가시키

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학술잡지자원의 양을 빈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연구동향

1.3.1 외국의 동향

외국도서관들은 많은 학술잡지를 결호없이 수집해 왔으나, 다양하게 증가하는 이용자요구를 충족시키고 한정된 도서관 예산을 능률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에서 상호대차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정확한 서지사항과 소장처를 기록한 종합목록을 작성해 각 도서관마다 비치하여 활용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도서관의 대출통계에 의하면 대출 가운데 상호대차가 차지하는 부분은 1%에 불과할 뿐이다(이두영 1995, 40). 그리고, 도서관이 상호대차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도서관이 자료를 많이 소장할 때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Andaleeb(1998)가 미국의 펜실바니아에 있는 Behrend College Library, Nah Library of Gannon University, Hammermill Library of Mercyhyust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자료, 사서들의 책임감, 사서들의 행위, 도서관건물과 학생들의 도서관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도서관에 자료가 많은 경우에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료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의 행위나 이용도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자료의 구입, 보존 및 폐기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제분야별 이용자의 이용행위나 핵심잡지, 인용문헌, 연구전선, 반감기 등을 포함하는 계량서지학이 발달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장서개발정책에 반영하여 자료들

수집하고 폐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기간행물 관리에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대학에서는 현재 구독하고있는 잡지들을 분야별로 연구한 다음 정간물 이용에 대한 원가개념(cost per use)으로 비싼 정간물을 취소하고 취소한 가격의 20%로 Uncover를 구독하고 나머지 10%를 새로운 정간물을 구독하는 등 전자 네트워크 자원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Schwartz 1998, 116).

도서관에 자료량이 많아지면서 대두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검색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색인과 초록을 작성하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전자매체를 활발하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서지데이터베이스나 CD-ROM에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정보검색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찾은 자료들의 원문을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용자들은 원거리에서 분산검색(distributed search)을 이용하여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즉시 원문까지도 받아보고자 하는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리노이의 LCS나 오하이오링크는 각 도서관의 대출시스템을 연결시킨 것으로서 타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자료의 대출상태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타도서관에 자료를 직접 요구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상업기관이나 벤더들이 전문도서관에 축적된 학술잡지를 디지털화 하여 전자잡지로 만들어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잡지의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인쇄자료가 도서관에 주류를 이루면서 미국 연구도서관의 90%의 예산은 인쇄자료를 구입하는데 이용된다고 한다(Shreeves 1997, 386). 그리고 이용자는 주로 최근 20년 동안 출판된 자료를 많이 사용하므로, 지속적인 과거자료의 보존이 요청된다. 예를 들

어 OCLC에 들어온 요구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5년 이내의 자료를 가장 많이 요청해 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20년 이내의 자료를 요청해 왔다고 한다(Prabha 1997, 566).

상업적 전자잡지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면 도서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전자잡지도 일률적으로 구독하게 되므로, 현재에는 각 잡지를 분야별로 하나씩 조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도서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전자잡지를 주문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일단 구입한 전자자료의 경우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정보를 검색할 권리가 있으므로 미래의 이용자가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문서화하여 도서관에 보존하지는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잡지를 도서관에 보관하지 못하고 출판사가 전자잡지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용자들이 잡지를 다시 보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근래에는 디지털도서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술잡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컨소시엄은 과거에는 인쇄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자료를 공유하고자 각 주(州)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지아주의 갈릴레오, 루이지아나주의 도서관네트워크, 오하이오주의 오하이오링크, 버지니아주의 비바 등이다. 컨소시엄은 인쇄자료의 대치보다는 현존하는 도서관봉사를 지속시키며 더 많은 이용자가 작은 도서관과 가상교육환경에서 좀더 많은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1.3.2 국내의 동향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외국학술잡지에 대한 의존도는 87.2%(유경희 1971)로 나타나고 정보학 분야의 외국학술잡지에 대한 의존도는 39.1%(남

영준 1995)로 나타나 외국학술잡지의 소장이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70년 이후, 도서관의 학술잡지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학술잡지를 반감기, 인용문헌법, 브라드포드의 법칙 등을 이용하여 연구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도록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박지혜(1981)는 서울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외국학술잡지의 평균 중복률이 63.4%나 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윤영대(1985)는 의학도서관의 인용문헌을 통하여 이용빈도 순서에 따른 의대별 핵심잡지목록과 3개처 이상 10회 이상 공통으로 인용된 학술잡지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김석영(1993)은 외국학술잡지의 언어, 발행국, 간기, 주제분야와 소장규모를 연구한 결과 전체적으로 외국학술잡지가 월간지와 영어로 된 것이 많고 그 종수는 적으며 중복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산업기술정보원에서 1972년부터 1982년까지 해외로 학술잡지의 원문을 요청하는 건수는 연간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로 원문을 요청하여 입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연간 약 4억 5,000만원으로 해외잡지의 원문을 구매할때 소요되는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외국학술잡지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몇몇 도서관을 중심으로 분산형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외국학술잡지를 적게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산업기술정보원과 링크하여 이곳으로 집중형 체제를 구축하므로써 국가 전체적으로는 분산집중형을 이루는 협력체제를 구상하였다. 또한 김석영(1995)의 논문에서 보면, 외국학술잡지의 중복률이 1972년에 41.1%였고 1992년에는 53.1%, 1995년에는 60.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각 기관이 소장하고있는 외국학술잡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유통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유재욱(1993)은

문헌정보학분야에서 1,083개의 인용문헌을 연구한 결과, 저널이용은 1970년대에는 28.9%에서 1980년대에는 42.3%로 증가하였으며 언어는 영어가 56.7%, 한국어 37.0%, 일본어 32.2%로 나타났다. 또한 영문자료의 증가가 1970년대 43.0%에서 1980년대 58.6%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인용문헌중 76.6%가 서양잡지에서 인용되었고 서양잡지인용이 1970년대에는 56.4%에서 1980년대에는 78.6%로 증가하였다. 서양의 핵심잡지는 Libray Trend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slib Proceeding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등이었다

이용자가 전문화 또는 다양화하면서 점차로 상호대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므로 상호대차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도 수행되었다. 김창근(1994)은 한국의 상호대차 발전과정을 협력체별로 포괄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경민(1997)은 상호대차의 활성화요인을 연구하였다. 도서관들은 공동구매나 상호대차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상호대차를 현실화시키지 못하였고 그것을 위한 협력체가 활성화되는 일도 드물었다. 그러나, 의학부분에서는 상호대차가 활성화되고 실무를 위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홍기선(1992)은 카톨릭대, 연세대, 서울대 의학도서관들이 일본으로 의뢰하는 상호대차 요구를 분석하여 국내도서관에서 5차 이상 신청된 잡지는 자관에서 자체 구독하도록 목록을 제시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것은 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조정하여 도서관의 업무를 감소시켜 주고 국외신청잡지는 517종에서 450종으로 감소되도록 했다. 한편, 윤정선(1996)은 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현황에서 20종 이상의 외국학술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97개 도서관을 조사한 후 학술잡지의 목록이 부정확하고 원문입수기간이 지연되며 소수의 도서관으로 문헌복사의뢰가 집중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상호대차를 위한 협력체제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구독하는 외국학술잡지 종수가 얼마나 적고 결호수가 많으며 외국학술잡지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종합목록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도서관의 정기간행물 목록이 아직도 전산화되지 않았으며 정보검색을 위한 종합목록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출판한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위한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과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출판한 과학기술분야의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이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이 이 두가지 목록을 한곳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가상 공동목록이 필요하며 이곳에 수록되지 않은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목록도 포함하여 이용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구독하고있는 모든 외국학술잡지를 검색하고 그 원문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연구도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외국학술잡지의 수집과 이용에 응용하도록 하였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분야별로 다르며 도서관은 이용자의 정보이용행위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도록 외국학술잡지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이용하게 된다. 문헌정보학의 이용자는 다른 분야의 이용자보다 독특한 정보이용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의 사서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많아서 개개인이 정보소재를 파악하면 원본을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사서를 통하여 쉽게 구하게 된다 (면담결과).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자잡지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이용자들이 정보검색을 하던 Library Literature

나 LISA에 수록된 잡지의 원문은 전자잡지에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며 문헌정보학잡지의 참고문헌에는 극소수의 전자잡지만이 인용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많은 대학들이 종합평가를 받으면서 도서관에 고가의 전자잡지를 구독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많은 이용자가 전자자료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디지털자료를 찾는 것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 인문사회분야의 교수들은 거의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지 않으며(이우범 1998) 외국에서 원문을 많이 신청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외국에서 구입하는 원문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원문을 구입하는 경우 BLDSC는 Unit당 US \$10-12을 지불하고 다른 외국 agent들은 매당 US \$1을 요구한다(김창근 1998).

또한 이용자들은 아직까지는 전자잡지에 기술적으로도 접근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데이터베

이스의 형식과 이용법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외국학술잡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KUCED(한국대학도서관컨소시엄)는 각대학에 SearchBank를 이용시키며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5개 대학도서관장도 최근 국내외환시장의 불안에서 오는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1998년 9월 30일 <해외학술지 공동이용 및 구독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2. 연구방법

2.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우리나라에 소장되어있는 외국학술잡지를 수록한 산업기술정보원의「외국학술

<표 1> 서명*에 의한 자료

소장처	년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Vol.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경북대										0	0	0	0	0	0	0
국회도서관		0	0	0	0 (1-3)	0	0	0	0	0	0	0	0	0	0	0
동의대												0	0	0	0	0
이화여대							0	0	0	0	0	0	0	0	0	0
한국학술진흥재단												0	0	0	0	0

*LIBRI:INTERNATIONAL LIBRARY REVIEW (1951-)
간기:Q 발행국:DK 발행언어:ENG

잡지종합목록: 과학기술편, 1995』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 인문·사회과학편, 1996』의 색인에서 각각 171종과 287종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잡지(총 458종)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모든 소장처, 연대와 권호수별로 나열하고 표시하여 한눈에 국내의 외국학술잡지 수집상태와 도서관간, 자료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표 1>을 수작업으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자료들을 Excel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여 그림으로 표시한 후 계량서지학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수집한 잡지중 제목이 바뀌거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였다. 또한 여러 이용자들을 면담하여 자료를 보충하였다.

<표 1>을 작성한 결과 국내의 문헌정보학분야의 외국학술잡지에 관하여 언어, 출판지, 가격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집한 외국학술잡지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는 외국학술잡지들이 관종별로 어떻게 소장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분포되어있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기할 수 있다.

- 1) 국가적인 문헌정보학 자원의 규모는 어떠한가?
- 2) 문헌정보학 외국잡지의 성격(언어, 출판지, 간기)은 어떠한가?
- 3) 관종별, 지역별 소장상태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이용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 1) 전체구독수 : 각 도서관에서 한번이라도 구독한 바 있는 문헌정보학관련 잡지의 종수

를 모두 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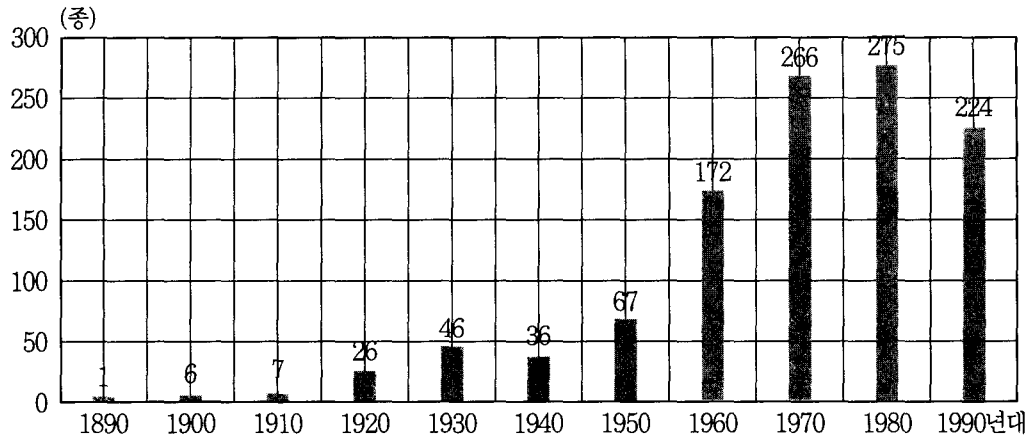
- 2) 완독수 : 각 도서관에서 한 타이틀도 결호된 없이 수집한 문헌정보학관련 잡지의 종수를 모두 더한 것이다.
- 3) 구독중단 : 구독하다 중단한 잡지
- 4) 지역별 소장잡지 : 각 도(道)별로 도서관에 소장된 외국학술잡지
- 5) 종수 : 외국학술잡지 서명수 (Title 수)
- 6) 권수 :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외국학술잡지 세트의 합 즉 'Title 수 * 소장처수'를 모두 더한 것

2.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산업기술정보원의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 과학기술편, 1995』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 인문·사회과학편, 1996』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전적으로 이 두 곳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기술정보원의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 과학기술편, 1995』와 한술진흥재단의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 인문·사회과학편, 1996』은 계속 개정되어 출판되었는데 연도가 증가할수록 잡지수도 증가하여야 하지만 구독잡지 종수가 일관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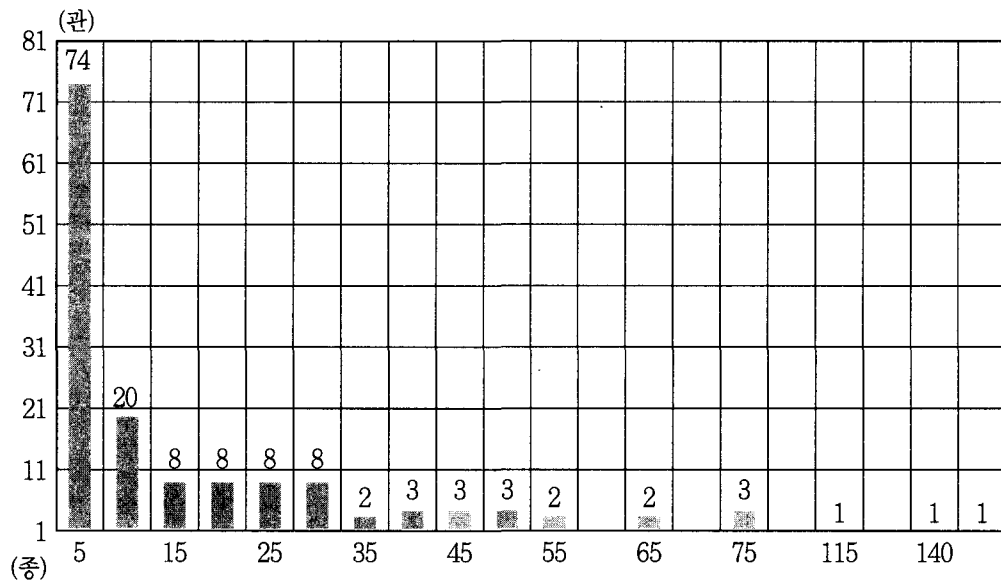
- 2) 내용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색인과 본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며 같은 잡지지만 발행년도에 따라서 발행빈도, 출판국, 언어가 다르게 수록되었거나 폐간된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독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도 발견되었다.



〈그림 1〉 연대별 학술잡지 구독수

〈표 2〉 구독을 많이 하는 기관 (단위:종)

순 위	소 장 처	구독잡지수
1 위	국회도서관	141
2 위	산업기술정보원	140
3 위	서울대	112
4 위	이화여대	75
5 위	국립중앙도서관	74
6 위	한국사회과학도서관	70
공동 6위	성균관대	70
7 위	경북대	64
8 위	한국과학기술원	62
9 위	연세대	54
공동 9위	포항공과대	54
10 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0



〈그림 2〉 구독잡지수와 도서관수

3. 문헌정보학 외국학술잡지의 현황

3.1 규모와 성격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993-1994」에 수록된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외국학술잡지의 종수는 약 1,000종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구독하는 문헌정보학에 관계되는 잡지의 전체 종수는 458종이다. 이중 동양잡지는 108종이고 서양잡지는 350종이다. 이러한 외국학술잡지의 언어는 영어 327종(71.7%), 일본어 79종(1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판지별로 보면 미국 179종(38%), 일본 87종(19%), 영국 67종(15%)순이다. 간기별로 보면, 계간 141종(32%)이 가장 많고 다음이 월간 102종(22%)이다.

3.2 연도와 도서관별 소장

우리나라 전체에서 구독하는 문헌정보학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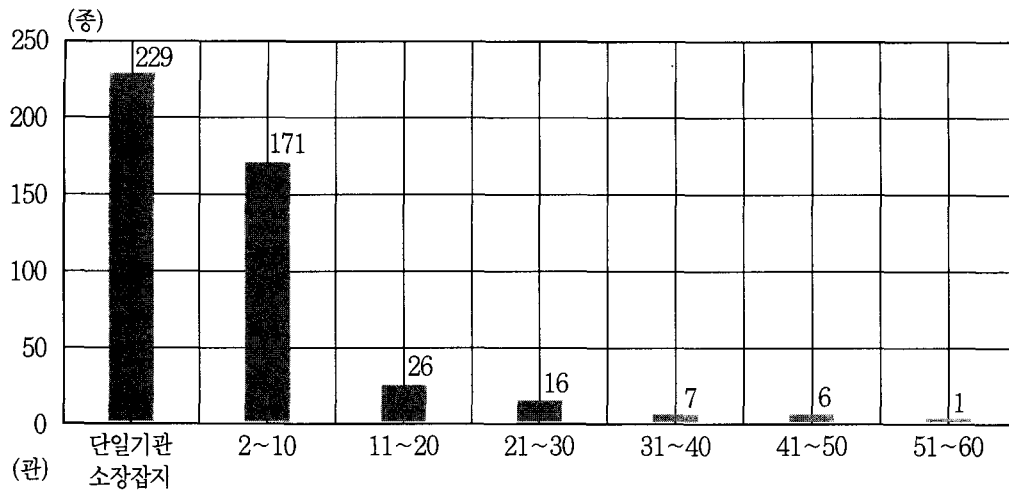
외국학술잡지의 종수를 연도별로 보면 〈그림 1〉과 같다.

국내에 소장하고있는 문헌정보학관련 외국학술잡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876년에 발행된 Library Journal이다. 〈그림 1〉에 의하면 1950년대부터 외국학술잡지를 많이 구독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르러 구독종수가 가장 많았으나 1990년대에는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서관에 소장된 외국학술잡지수는 〈그림 2〉와 같다. 잡지는 모두 147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중 74곳이 5종 이하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으나 100종 이상 구독하는 곳도 3곳이나 된다. 도서관당 평균구독수는 16종이며 중간치는 3종으로 많이 소장한 도서관과 적게 소장한 도서관의 차이가 많다.

외국학술잡지를 가장 많이 구독하는 기관을 순위별로 보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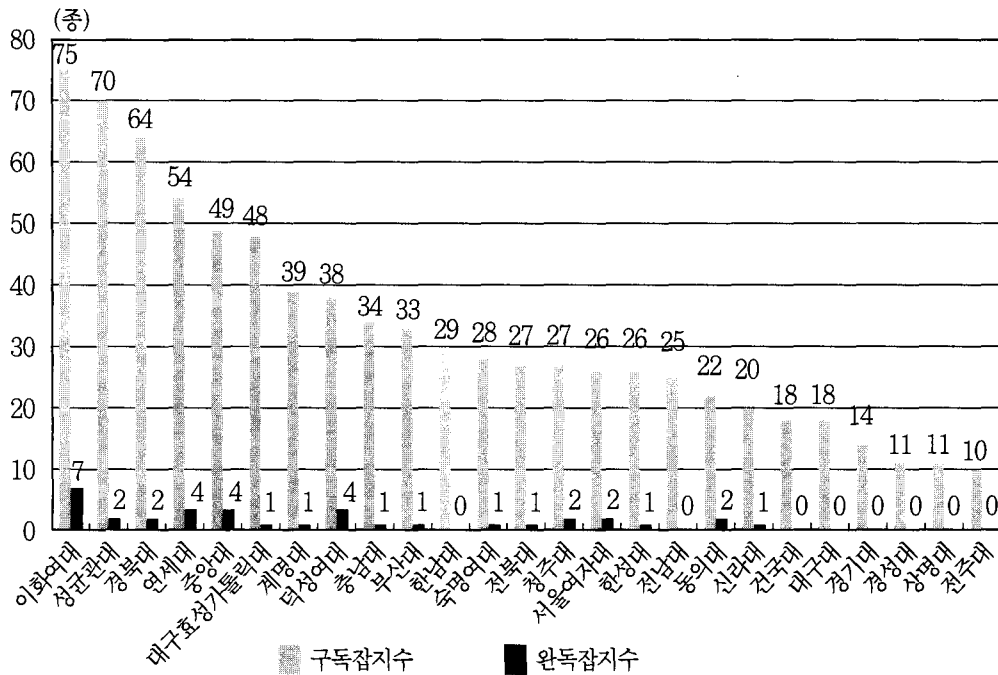
〈표 2〉를 보면 국회도서관이 141종을 구독하



〈그림 3〉 중복소장

〈표 3〉 중복소장이 많이 된 잡지

순 위	잡지 명	전체구독 기관수	가 격 (US\$)	전자잡지
1위	Library Journal	48	179.00	0
2위	Library Trends	45	75.00	0
3위	Datamation	43	-	-
공동 3위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3	70.00	0
4위	Artificial Intelligence	42	-	-
5위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41	60.00	0
6위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9	-	-
7위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8	1,244.00	0
8위	Journal of Documentation	36	-	-
9위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	35	-	-
공동 9위	圖書館雜誌(도서관잡지)	35	-	-
10위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4	811.00	-



〈그림 4〉 문헌정보학과개설 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된 외국학술잡지수

여 문헌정보학관련 외국학술잡지를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정보원,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상위 리스트에 들어간 이유는 도서관학에 정보학이 편입되는 학문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문헌정보학으로 개칭이 되고, 문헌정보학 잡지에 점차 컴퓨터관련 잡지도 많이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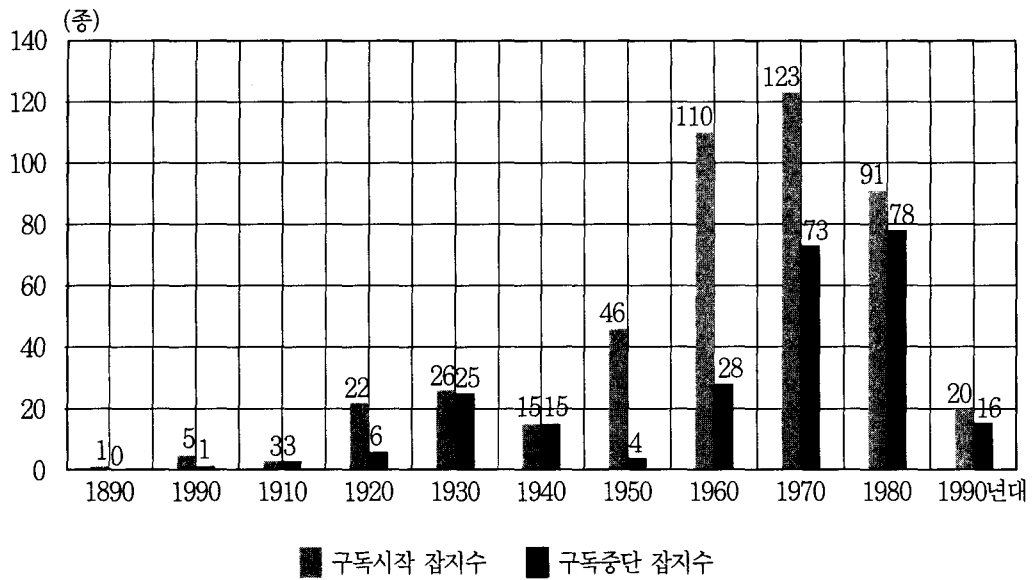
소장된 외국학술잡지의 중복상태는 〈그림 3〉과 같다.

이 〈그림 3〉에 따르면 229종의 잡지는 중복 소장되어 있고 229종은 중복 소장되지 않았다. 즉 문헌정보학 관련 잡지중 정확하게 50%가 중복 소장되어있다. 2-10기관에 중복 소장되어 있는 잡지는 171종이며 40기관 이상에 중복 소장되어 있는 외국학술잡지도 7종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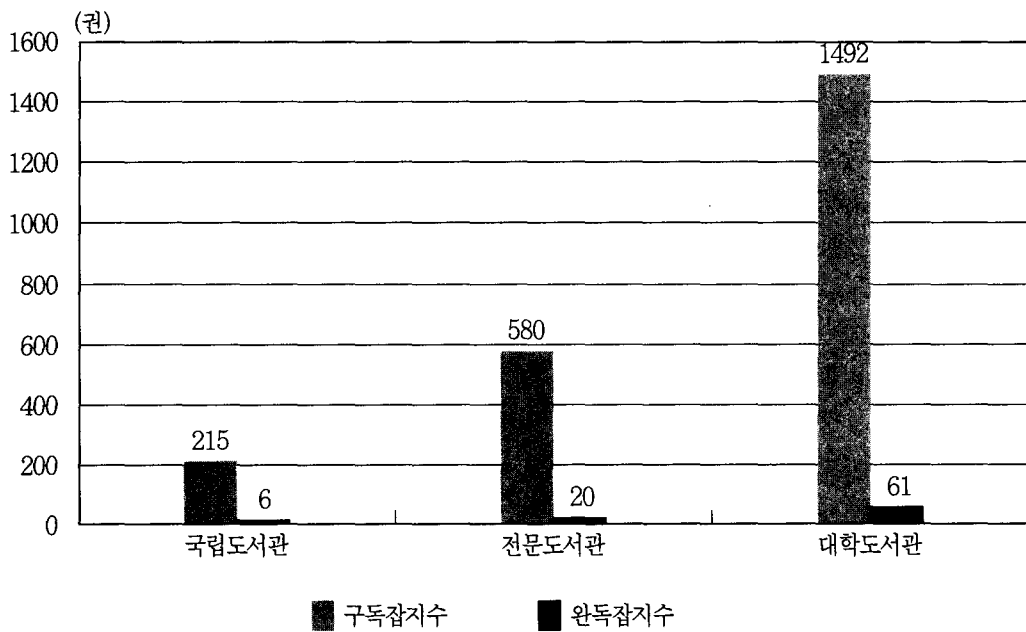
많이 중복 소장된 외국학술잡지명과 소장 기관 수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가장 많이 중복 소장된 잡지는 Library Journal이며, 이 잡지는 48곳에 중복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중복 소장된 외국학술잡지는 영어권에서 출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대학 도서관의 외국학술잡지 구독수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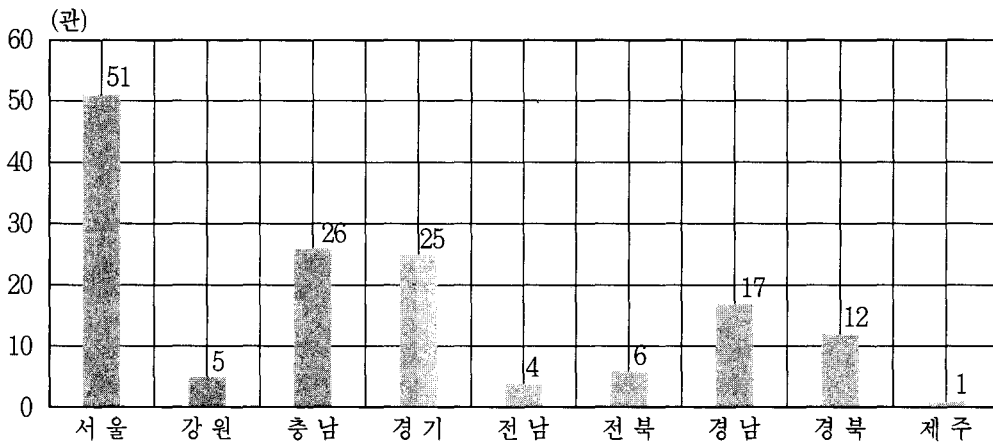
전체 구독하는 잡지수는 총 2,287권으로서 이중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도서관에서 832권 (36.3%)을 구독하고 기타도서관에서 1,455권 (63.3%)을 구독하고 있다. 각 도서관은 평균 16종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이중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이 가장 많은 수의 잡지(75종)를 구독하고 있으며 10종이하의 잡지를 구독하는 곳도 있으나 이것은 학과가 창립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그림 5〉 구독시작 잡지수와 구독중단 잡지수



〈그림 6〉 관종별 도서관의 구독잡지수와 완독잡지수



〈그림 7〉 지역별 외국학술잡지 소장처수

나 본연구가 자료를 수집한 종합목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3.3 구독형태별 잡지수

잡지를 많이 구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호없이 구독하여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잡지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새로 구독을 시작하는 잡지수와 구독을 중단한 잡지수를 연대별로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구독잡지수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새로 구독을 가장 많이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많은 잡지의 구독을 중단하고 새로운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종별로 보면 외국학술잡지 구독수와 완독수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 의하면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외국학술잡지수가 1,492권(65.2%)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전문도서관 580권(25.4%)과 국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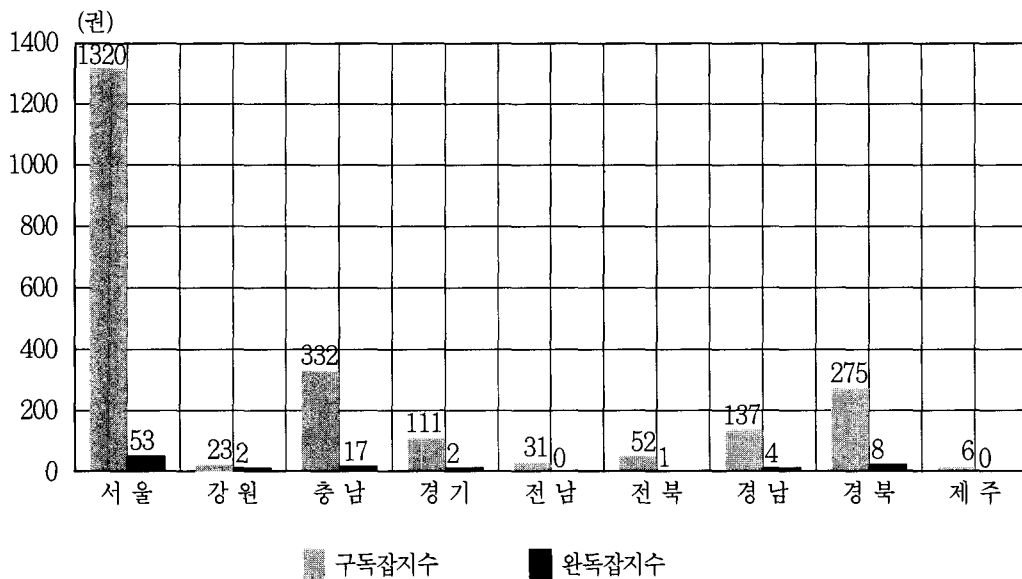
215권(9.4%)의 순이다. 또한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외국학술잡지 완독수도 61권(70%)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전문도서관 20권(23%)과 국립도서관 6권(7%)의 순이다. 즉, 대학도서관이 가장 외국학술잡지를 많이 구독하며 완독한 잡지수도 가장 많다. 구독잡지수와 완독잡지수의 비율은 대학도서관이 4.0%, 전문도서관 3.4%, 국립도서관은 2.7%에 그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도서관중에서 가장 외국학술잡지를 많이 구독하는 이화대학교는 구독수(75종)에 비하여 완독수(7종:9.3%)도 가장 많다(그림4 참조).

3.4 지역별 소장

외국학술잡지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지역 분포는 〈그림 7〉과 같다.

외국학술잡지를 많이 소장한 순서로 보면 서울(51관), 충남(26관), 경기(25관), 경남(17관)이다. 각 직할시는 그 시가 소재하고 있는 도에 포함시켰다.

지역별로 소장한 학술잡지수와 완독수를 보면



〈그림 8〉 지역별 외국학술잡지 소장수와 완독잡지수

〈그림 8〉과 같다.

외국학술잡지를 많이 소장한 순서로 보면 서울 1320권(57.7%), 충남 332권(14.5%), 경북 275권(12%)이다. 모든 지역의 완독잡지수는 상당히 작은 편이다.

3.5 잡지가격과 전자잡지

외국학술잡지의 가격은 다양하다. 인쇄잡지의 평균가격은 사회과학종류가 US \$96, 기술 US \$165, 과학 US \$305(Barnes 1997, 410)이다. 중복소장이 많이 된 Library Trends는 US \$75이고, JASIS는 US \$1,244이다 (표 3 참조).

국내에서 구독하는 서양잡지 350종 가운데 EBSCO에서 전자잡지로 볼 수 있는 것은 31종이다(URL: <http://www.kric.ac.kr> 1998.8.7). 가장 많이 중복 소장하여 이용자들이 빈번히 이용한다고 생각되는 잡지 12종 중에서 전자잡지로

볼 수 있는 것은 5종 뿐이다(표 3 참조). 그리고 대부분의 전자잡지는 1990년 이후에 새로운 잡지로 시작되어 나온 것으로서 한 분야에 50종을 넘지 않으며(Barnes 1997, 410) 전자잡지는 인쇄잡지보다 25-100% 정도 가격이 비싸게 정해질 수 있다 (박혜옥 1998).

4.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구독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외국학술잡지 458종을 선정하여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여 외국학술잡지 수집상태와 도서관간의 자료별 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전체적으로 외국학술잡지의 종수가 적으며, 적은 것에 비하여 중복 소장된 잡지가 많다

(50%). 또한 도서관에서는 수시로 구독하던 잡지를 중단하고 새로운 잡지를 구독하므로써 완독한 잡지수가 적고 결호도 많다.

2) 문헌정보학 분야의 외국학술잡지는 주로 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충남, 경기도내의 도서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소장된 잡지수는 도서관의 관종별로 그 수에 큰 차이가 있으며 각 도(道)별로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각 잡지간의 가격에도 큰 차이를 보이며, 많은 잡지가 아직도 전자잡지로 볼 수 없다.

이용자들이 결호가 많고 중복 소장된 외국학술잡지에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는 소장잡지의 정확한 서지사항과 지역별로 외국학술잡지 소장처를 기록한 고유하고 독특한 가상 공동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록을 이용하면 한국내의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한 도서관이 불규칙하게 수집하여 결본이 된 잡지 1부라도 다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전체적으로는 국내에 그 잡지 전부가 수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도서관에서 지속하여 구독하지 않은 잡지라 해도 결호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도서관의 소량의 소장자료라도 알려지게 되면 특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도서관 소장자료의 23%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Potter 1997, 416).

소장된 외국학술잡지중에는 많은 핵심잡지 (유재욱 1993)가 있으므로 문헌정보학의 이용자는 비교적 자원에서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외국학술잡지가 많이 소장되어 있지 않은 지방의 이용자들을 위하여 학술잡지의 소장여부 및 소장위치가 표시된 정확한 공동목록이 필

요하다. 한국인의 특성은 한지역내에서 학연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원문을 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한곳으로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지역적인 요인은 컨소시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불규칙하게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외국학술잡지를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결호를 채워 놓고 완독시키며 공동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사서들이 자주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는 도서관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동목록은 외국학술잡지의 구입에 중요한 정보를 주게 된다. 외국학술잡지 가격이 매우 다양하므로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수서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인쇄잡지와 전자잡지의 가격을 하나씩 비교하여 필요한 전자잡지만을 맞춤 주문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동종합목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은 구비되어 있으므로 리더쉽을 겸비한 정보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들이 해야할 일은 각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중단된 잡지를 국가차원에서 완독시키고 결호를 채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합리적인 전자잡지를 선택하여 전국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또한 일선의 사서들은 각 도서관이 소장한 외국학술잡지의 정확한 서지사항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서로 알려주어 공동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개별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석영. 1993. "외국학술잡지의 국내 소장현황과 문제점." 정보관리연구. 24(3):57-72.
- 김석영. 1995.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현황분석" 정보관리연구. 26(3):54-62.
- 김창근. 1994.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근. 1998. "정보자료 공동활용의 선진화 추구: Web Server를 이용한 상호대차제도 운영 사례" 제36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집 서울;한국도서관협회:123-149.
- 남영준. 1995. "인용문헌을 이용한 정기간행물 효용성 평가." 제2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29-132.
- 박성민. 1994. "정보학분야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혜. 1981. "대학도서관의 외국학술잡지 중복실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옥. 1998. "디지털도서관의 재정보강: 4단계 방안." 제36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집. 서울;한국도서관협회:17-53.
- 산업기술정보원. 1995.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 과학기술편」 서울;산업기술정보원.
- 유경희. 1971. "물리학분야 학술잡지의 인용분석." 새물리. 12:25-29.
- 유재욱. 1993. "도서관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행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0(2):145-167.
- 윤정선. 1996. "학술잡지공유를 위한 의학도서관 협력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 1997. "대학도서관 상호대차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두영. 1995. "도서관협력의 시스템환경적 문제."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국립중앙도서관:35-49.
- 이우범. 1998 "학술정보활용증진을 위한 인터넷 이용자 분석연구" 한성대논문집. 22 (출판중)
- 최정혜. 1987. "도서관학분야 문헌의 계량서지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학술진흥재단. 1996.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인문·사회과학편」 서울;한국학술진흥재단.
- 홍기선. 1992. "의학잡지 상호대차 업무개선을 위한 연구: 협동수서계획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aleeb, Syed Saad and Simmonds, Patience L. 1998. "Explaining user satisfaction with academic libraries: strategic implication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59(2):156-167.
- Barns, John H. 1997. "One giant leap, one small step: continuing the migration to electronic journals." Library Trends. 45(3):404-415.
- Burnam, Paul D. 1998. "Private liberal arts colleges and the costs of scientific journals: a perennial dilemma."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59(5):406-

- 420.
- Lynch, Clifford A. 1997. "Building the infrastructure of resource sharing: union catalogs, distributed search, and cross-database linkage." *Library Trends*. 45(3):435-461.
- Potter, William Gray. 1997. "Recent trends in statewide academic library consortia." *Library Trends*. 45(3):416-434.
- Prabha, Chandra and Marsh, Elizabeth C. 1997. "Commercial document suppliers: how many of the ILL/DD periodical article requests can they fulfill?" *Library Trends*. 45(3):551-568.
- Shreeves, Edward. 1997. "Is there a future for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in the digital age?" *Library Trends*. 45(3):373-390.
- Swartz, Charles A. 1998. "Restructuring serials management to generate new resources and services-With commentaries on restructuring at three institution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59(2):115-124.
-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993-1994. New York: Bowker.
<http://www.kric.ac.kr> (1998년 8월 7일)